

國民의 見解



Harold B. Finger

〈美國에너지發協議會 (USCEA) 理事長〉

과거 몇년에 걸쳐 우리는 원자력의 필요성 - 원자력의 이익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우리 업계는 원자력반대파의 위협적인 기술에 대한 대응에 바빠 적극적인 발언을 하는 일이 드물게 되었다. 더욱 설사 적극적인 발언을 할 때라도 숲속에 쓰러지는 나무처럼 외로운 발언이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보도기관도 듣고 있지 않았고, 정치가도, 실업계도, 대중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좋은 뉴스가 있다. 그 좋은 뉴스란,우리는 승리를 향해 전진한다는 말이다. 우리 - 산업계는 -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것은 USCEA 커뮤니케이션 · 프로그램의 기본목표였다. 우리는 공세로 나갔다. 우리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수단을 사용하여 - 사실을 계속해서 일관하여 - 많은 주민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메시지가 들리게 되었다. 새로운 발전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자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원자력은 미국의 주민, 법률가, 미디어, 실업계 및 아마 반대파 사이에서 조차 점차 수용하게 되어 왔다. 점차 그들은 원자

력이 국가의 경제성장 및 안전보장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원자력을 점차 매력적인 옵션으로 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 경제, 환경 및 지정학적인 면에서 미국과 전세계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電化는 과거 10년중 지금이 가장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USCEA 최초의 광고를 낸 1983년에 우리의 계획을 시작 이래, 이 電化의 프로세스를 계속 지적해 왔다. 우리의 논점이 확인되었다.

전력수요는 예상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지역에서는 전력공급이 이미 위험할 정도로 적어지고 있다. 뉴 · 잉글랜드 및 대서양연안 중부의 각주는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의 공급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여름에는 뉴 · 잉글랜드에서 캐롤라이나까지 전압을 낮추어 절약사용을 요청했다. 지난 여름 중서부의 일부에서는 최대전력수요가 1990년대 중반에 예상되던 수준에 까지 달했다. 태평양북서부의 일부에서는 여유도가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

두번째 중요한 변화는 미국이 점차 외국산유

국에 의존하게 된데 대한 국민의 불만이다. 1987년에 북·신씨가 1973년에는 미국의 석유수입중 18%가 불안정한 중동에서의 것이었다고 말했는데, 1985년에는 석탄과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후 석유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을 10% 이하로 인하였다. 오늘날 미국의 석유수입중 24% 정도가 중동에서 오고 있다. 미국은 1973년보다 위험한 상태에 있고, 미국민은 이와 같은 의존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다. 또 대통령 선거전에서 지적되었듯이 미국의 극심한 무역불균형도 큰 불안의 요인이다. 석유수입은 현재 이 무역적자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로 그린하우스(溫室)효과가 지난 여름에 미국의 일반용어가 된 점이다. 조사에 의하면 미국민의 64%가 온실효과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원자력은 지금까지 없었던 우세의 위치가 되었다. 국내의 여론지도층 인사들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국내에너지 및 국제환경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며, 원자력이 그 해결책중에서 중요한 역할의 일부를 맡고 있는 것이다.

일반대중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뚜렷한 조짐이 보인다. 그러나 본인의 말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본인은 미국이 에너지선택의 메뉴를 검토하고 있으며, 원자력은 당연히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대단히 바람직한 움직임의 증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오늘날 우리들은 미국신문의 사설, 권두언, 미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잡지의 기사속에서 원자력에 대한 좋은 뉴스를 발견하게 되었다. 미국의 신문, 잡지의 사설과 권두언 및 기사에서 점차 적극적인 어프로치를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표제가 게재되어 있다. 이런 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문장의 일부를 소개한다.

8월 11일자 워싱턴·타임즈의 사설에서 벤·

워텐버그씨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미국 및 전세계 국가들은 원자력을 보다 많이 채택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개발도상국에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동씨는 원자력을 그 생활수준 개선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신문연맹의 칼럼리스트인 존·백씨는 볼티모어·선에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원자력발전) 안전성과 코스트효율을 최대로 해서 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계에 유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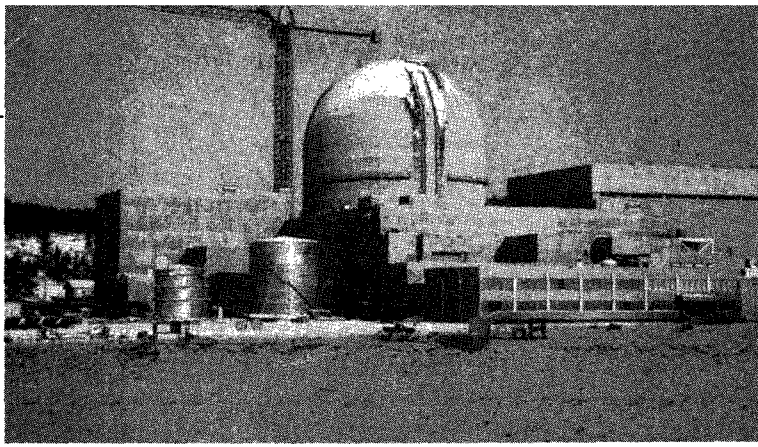
더·템퍼·트리분·타임즈는 우리들이 「가정, 사업, 공장 및 장래에는 기본적 수송수단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신세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리조나·리퍼블릭은 미국의 에너지수요의 기록적 수준 및 지난 여름의 동부 및 중서부에서의 전력문제에 대해 언급한 기사 속에서 「미국민이 미국정부의 근시안적 에너지정책 때문에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라고 하였다.

원자력의 이익에 대한 인식은 사설기사의 범위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가장 신뢰받고 있는 잡지의 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포춘의 8월 1일호 기사의 표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우려를 제거」이다. 「원자력트레상스」라는 제목의 옴니 1988년 5월호의 커버라인은 「원자료가 되돌아 왔지만 반응은 양호」라고 서술하고 있다.

뉴·리퍼블릭의 커버·스토리는 지구의 온난화에 대한 대책의 「불가결」의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부활을 요구하고 그 견해를 전개하고 있다. 동 기사는 「원자력에 관한 일반적인 불만은 힘을 잃고 있는 중이다」라고 서술함과 아울러, 소표제에서는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원자력에 찬스를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USCEA는 원자력을 정당화하는데 온실효과를 논거로 들지는 않고 있다. 우리들은 미국 및 전세계가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



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는 새로운 기저부하용 발전시설이 필요한 점과 석유의 수입증가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이 점이 미디어에서도 주장되고 있다.

예를 들면, 10월 12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내에서 여러가지 전력에 관한 논의에 대해 논하고 있다. 동 기사는 전력회사가 새로운 기저부하용 발전소의 건설을 시작하지 않으면 증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정기간행물 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제 100차 회의에서는 원자력문제에 관한 중요한 투표안건 21건에 대해 모두 승리했다.

대중수준에서 뽑힌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적극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지난 여름의 전국주의회 연차대회에서도 7,500명의 주의회의원이 40대 6의 압도적인 차로 원자력지지의 결의를 가결했다. 의원들은 원자력발전소를 보다 빨리, 보다 싼 코스트로 운전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의회가 인허가수속을 개혁하도록 요구했다.

우리들은 미국이 직면한 에너지문제를 인식하여 원자력의 역할을 고려한 논리 정연한 국내에너지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공화·민주 양당의 지사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지사협회는 종합적인 국내에너지정책 속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인정한 白書案을 발행하여 코멘트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들은 에너지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그들에게 동의한다.

이들 바람직한 정치적 전개는 모두 대중이 점

차 널리 원자력을 수용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정치가는 선거민의 반응에 신경을 쓴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많은 국민이 일반주민이 원자력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사실 본인이 국내를 여행해 보면 사람들 - 대개 자기 자신은 원자력을 지지하는 과학자나 엔지니어 - 이 기술 또는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대중 또는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자력을 단념한다는 말을 듣고 놀라는 일이 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데이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캠브리지·리포프트가 실시한 원자력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것은 대중의 태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원자력은 지금부터 10년후 주요한 전력자원으로서 다른 어떤 자원 보다 훨씬 자주 거론되고 있다. 원자력은 장래 국가에 큰 이익을 초래하는 자원으로서 인기가 있는 태양에너지와 같은 정도로 자주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80%는 장래 미국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원자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55%는 원자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 3년간에 20포인트의 증가가 있었다.

그리고 77%는 원자력발전소를 증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67%는 원자력이 훌륭한 또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수자는 미국인이 현실적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수용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

고 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과반수는 미국의 원자력발전소는 합리적이고 안전하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다. 72%, 즉 약 3/4은 장래의 발전소는 더욱 안전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진보와 기술에 대한 미국민의 신뢰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민은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이 실패에서 배운 교훈 및 우리들의 새로운 기술이 더욱 안전한 원자로를 만들 것이라는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대중은 원자력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면, 그는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조사의 증거가 그것을 밝히고 있다. 대중은 원자력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더욱 듣고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여 대중이 원자력발전을 지지하게 됐다는 바람직한 경향이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은 아직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초의 에너지위기와 같은 정도의 전력부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979년의 여론조사에서는 미국민의 약 70%가 정부가 직면해 있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에너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불과 1% 밖에 에너지를 들지 않고 있다.

작년 2월경에 향후 10년안에 자기지역에서 새로운 발전소가 필요하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불과 20%였다. 즉, 오늘날 국민은 10년전보다 에너지에 대한 걱정이 훨씬 적다. 그러나 점점 관심이 고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력수요의 증가가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력소비의 신장에 대해 최근 듣거나 읽거나 했다는 미국민의 수는 6월의 46%에서, 8월에는 64%로 증가했다. 이것은 주로 지난 여름의 더위와 발전능력에 대한 수요에 따른 것이지만 대단한 증가이다.

실업계는 미국의 전력수요 증가문제를 알고 있다 - 특히, 새로운 발전소의 필요성이 높은 뉴·잉글랜드와 같은 지역에서는 더 그렇다. 보스톤상업회의소에 의한 조사에서는 매사추세츠 주의 주요기업의 99%는 전력공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전력사정의 관계에서 신규사업이 동 지역에 오지 않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승리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본인은 단연코 승리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미국민의 상당수, 즉 90%는 원자력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 대중의 불과 5% 만이 원자력에 대해 분명히 찬성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불과 5% 만이 분명히 원자력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잇따라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의 산업이 항상 도전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대중에게 미국의 전력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외국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경고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국민에 대해 우리가 명백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는 원자력이 합리적인 해결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USCEA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러가지 그룹에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의 강사파견계획은 원자력계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원자력과학자 및 엔지니어를 시민 및 공공정책그룹, 미디어 등 국내의 모든 분야에 파견하여 원자력지지의 이야기를 해 왔다. 우리는 각종 분야 - 경제, 과학, 엔지니어링, 정부의 정책 - 의 전문가에게 의회, 전국의 간행물 기사 및 편집자에게 보내는 서간중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도록 권고해 왔다.

우리는 「뉴클리어·인더스트리」誌의 성격을 바꾸어 배포범위를 주정부와 연방의원 및 규제담당자에게 까지 확대하고, 그것을 커뮤니케이

선의 수단으로 바꾸었다. 인쇄물 및 TV에 의한 USCEA의 전국홍보프로그램은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미국의 여론지도층에 대해 원자력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 그것은 통상 뉴스로 되지 않는 중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홍보활동은 타임, 내셔널·지오그래픽, 리더스·다이제스트, 스미소니언 등에 의해 여론지도층과 대중 쌍방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우리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의 추적조사에 의하면 국민은 이 캠페인에 귀를 기울여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여론조사의 데이터, 의회에서의 성공과 우리의 적극적인 미디어에의 제공을 보면, 우리의 프로그램이 성과를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두 실시할 수는 없다. 그래도 우리는 시도해 볼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대중은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원자력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모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들과 함께 오늘 애기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널리 대중이 원자력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전력 및 원자력의 절박한 필요성에 대해 학교의 그룹미디어, 시민그룹 - 듣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 - 에게 다가가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학 및 엔지니어링계에 TMI에서의 사고후 원자력발전계의 중요한 성과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운전 및 관리면에서 이루어진 현저한 개선에 대해 알려야 한다. 작년 초의 8개월간 미국내의 원자력발전소의 평균 설비이용률은 66%이고, 이것은 신규 발전소를 6基 추가한 것과 같다. 폐쇄되어 있는 7기의 원

자료를 제외하면, 미국의 설비이용률은 72%가 되며, 세계 최고에 가까운 성적이 된다. 이런 성과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업계의 가장 효과적인 대변인인 그들에게 그 일을 대중에게 전하도록 권하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부의 정책입안자와 대중에 대해 장기적인 견해 - 미국의 에너지문제 뿐 아니라, 세계의 에너지문제도 마찬가지로 - 를 갖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자주 우리는 정책문제에 대해 단기적 시야 밖에 갖지 않고, 중요한 장기적 고려를 하지 않는 일이 많다.

2000년까지 전세계는 현재보다 30%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 단, 이것은 우리들이 에너지수요의 증가를 최근의 실적 이하로 억제하는데 성공했을 경우이다. 만약 실패하면, 세계는 지금보다 50%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2025년에는 세계의 인구가 쾌적도, 편리성 및 안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3, 4배 또는 5배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역사적인 도전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이세계의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인구에게 안정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까?

원자력은 분명히 하나의 해결책이다. 우리들은 국민 및 정부의 정치적 지도자에게 에너지문제에 대해 폭넓고 장기적인 시야를 갖도록 계속 권유해야 한다.

본인은 여러분에게 좋은 뉴스를 약속했다. 여러분도 좋은 뉴스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하나의 견해를 전달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지키는 시대는 끝났다. 문제는 해결에 있다. 여론의 흐름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 미국은 전력부족의 징후, 에너지의 대의존 및 환경문제 등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원자력산업계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이 해결책인지 알고 있으며, 국민은 거기에 귀를 기울일 의지가 있다. 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